

孫 잡은 국민의당 대선 판도 흔들나

(손학규)

제3지대로 민주당과 호남민심 잡기 경쟁 ... 대선 진보·중도·보수 3각 구도 재편

손학규 “개혁세력 총 집결”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이 7일 “국민의당과 통합해 더 나은 정권교체를 이루겠다”고 전격 선언해 대선 구도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3·4면〉

손 의장의 통합 선언은 지난해 10월 20일 ‘강진 칩거’를 끝내고 정계에 복귀한 지 3개월여만이며 이로써 야권 제 3세대 형성의 구제화됐다.

또 손 의장과 국민의당은 야권의 심장인 호남 민심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측과 한 판 경쟁을 벌이게 됐다. 나아가 대선 구도가 진보-중도-보수의 진영구도로 형성되는 분위기다.

국민의당과 손 의장 측은 곧 통합절차에 착수하게 되며, 손 의장은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등과의 대선후보 ‘통합경선’에 참여할 예정이다.

손 의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국민주권개혁회의와 국민의당이 바로 새로운 정치, 국가 개혁의 중심이자 정권교체를 이루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할 주역”이라며 “한국정치의 새 판을 짜서 통합의 정치를 열고, 위대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의 통합은 개혁세력 총결집



손학규 의장

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개혁 공동정부의 수립에 찬동하는 모든 개혁세력은 함께 해달라. 우리와 함께 진정한 정권교체와 위대한 대한민국의 주역이 되고, 변화의 시대의 개혁에 앞장서자. 반드시 승리하자”고 강조했다.

손 의장은 특히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책임을 짊어지는 수구세력은 정권 육신을 아예 버려야 한다”면서 “또 자기 패거리가 아니면 철저히 배제하고, 집단적인 문자테러를 가하는 민주당의 패권주의 집단이 정권을 잡는 것도 정권교체가 아니다. 그것은 박근혜 패권세력에서 또 다른 패권세력으로 바뀌는 패권교체에 불과하다”고 친문(친문재인)세력을 정면비판했다.

그는 또 “모든 대세론은 허상이다. 국민만이 진실이다”며 “촛불민심을 온전히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개혁세력, 안정적으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유능한 개혁세력, 국민 사이의 이해관계와 정치세력간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통합력을 가진 개혁세력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하나 바꾸는 것을 시민혁명이

라 할 수 없다. 대한민국을 대개조해서 새 판을 짜야 한다”고 역설했다.

손 의장은 기자회견 후 일문일답에서 대선 경선과 관련, “통합의 절차와 과정은 앞으로 실무진에서 협의를 할 것”이라며 “통합조건”을 묻자 “그런 건 없다. 당명개정 등 실무적 절차와 과정에 대해 이제부터 실무자 간 협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과 손 의장의 통합으로 일단 야권 제 3지대의 ‘스몰텐트’는 구축됐다. 관심거리인 이 텐트가 더욱 확장돼 ‘빅텐트’가 될 수 있는지는 점이다.

정치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인용된다면 이를 전후로 정운찬 전 총리, 김종인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 정의화 전 국회의장, 여기에 민주당의 일부 탈당세력이 참여하는 빅텐트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현재 대선구도가 탄핵과 반탄핵, 패권과 비패권, 개헌과 비개헌, 수구와 개혁 등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다”며 “하지만, 탄핵심판이 마무리되면 구도가 단순화되고 이때 어느 세력이 국민의 시선과 마음을 잡을 수 있느냐가 이번 대선 승패의 갈림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소 잃기 전 외양간 약치기 보성축협 직원들이 7일 보성을 가축시장에서 구제역 방역을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구제역 긴급 방역대책으로 전국의 모든 소 314만 마리에 대해 9일까지 백신을 접종하기로 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담양과 15km·장성과 20km 거리 남하 ‘초비상’ 전남, 구제역 차단방역 ‘고삐’

돼지 항체형성률 67% 그쳐 서둘러 백신 예방접종 나서

전남도가 구제역 정정지역을 시수하기 위해 백신 예방접종을 서두르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류 인플루엔자(AI)에 이은 구제역 발생으로, 축산농가와 방역당국의 피로감도 커지고 있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오는 21일까지 도내 소, 돼지 각각 34만1000두, 67만7000두에 구제역 백신 보급접종에 나선다. 6일 하루에만 소 3만2000두, 돼지 11만2000두 등을 접종하는 등 올 상반기 보급접종 대상서 서둘러 조치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2010년부터 구제역 백신 예방접종을 실시하면서 전남도내 소와 돼지의 항체 형성률은 각각 99%, 67%를 보이고 있다. 돼지의 경우 소에 비해 항체 형성이 더디다는 것이 전남도의 설명이다.

충북 보은에 이어 전북 정읍으로 구제역이 남하하면서 정읍 인접 지역인 전남은 영광, 장성, 담양, 곡성, 구례, 광양 등도 경계 6개 시·군 주요 도로에 구제역

이동통제초소를 운영, 축산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충북과 전북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우제품의 도내 반입(임식도축)을 제한하고 있다.

전남은 소 48만6000여마리, 돼지 111만2900여마리를 사육, 규모 면에서 전국 각각 2위, 5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34년 구제역 관측 이래 지금까지 발생한 적이 없다. 그러나 지난 11월 16일 AI 발생 이후 연이은 방역, 살처분, 예방접종 등으로 방역인력의 업무가 가중돼 있는데다 구제역의 경우 AI와 달리 공기 중 전염이 가능해 안심할 수 없는 실정이다.

구제역이 발생한 정읍 한우 농장은 직선거리로 담양과 15km, 장성과 20km 정도 떨어져 있다. 추가 백신 접종 이후 항체 형성까지는 2주 정도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 전남도의 설명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정읍 구제역 농가의 소 20두를 검사했더니 1마리만 항체가 형성돼 있어 항체형성률은 5%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이 농가는 지난해 8월 26일 마지

막으로 접촉한 것으로 서류상에 나타나 있는데 5개월이 안 된 상태에서 효력이 있어야 정상”이라며 “항체형성률이 5%라면 접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난 11월 16일 이후 매일 비상근무인데다 일일보고까지 계속되고 있어 전문인력들의 피로도가 높은 상태”라며 “하지만 방심하지 않고 서둘러 보급접종을 마치고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금남로에 34층 호텔·25층 주상복합
잇단 고층건물 옛 영화 되찾나 ▶ 14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현재, 2월 탄핵선고 물건너가 ... 5월 대선?

22일까지 증인 신문

헌법재판소가 이르던 이날 말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결론을 내리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현재는 7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불출석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20일에 다시 부르기로 했다. 또 최순실, 안중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22일에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이정미 현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에서 “김 전 실장

을 20일 오후 2시에 소환하고, 그 때 나오지 않으면 증인 채택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한 차례 증인신문을 했지만 한 번 더 부르기로 했다. 현재가 22일까지 새 변론기일을 지정함에 따라 일각에서 제기됐던 ‘2월 말 선고’ 전망은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3월 초 선고’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 소장 권한대행은 3월 13일 퇴임한다. 현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때도 마지막

재판을 마친 뒤 재판관 회의를 거쳐 2주 후 선고했으며 이번 심판에도 결론까지는 비슷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선고까지는 재판관들이 사건 쟁점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표결하는 과정인 평의를 거쳐야 한다. 먼저 평의일정을 정해 알리고 주심 재판관의 검토 내용 발표에 이어 재판관들의 의견 교환을 거쳐 최종 표결하는 평결을 하게 된다. 이후 결정서 초안을 만들고 검토를 한 뒤 확정하는 과정을 밟아야 해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연남뉴스



생각한다. 반응한다.
지능적으로

The New E-Class. Masterpiece of Intelligence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신성자동차(주) 광주 전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삼부대로 1041 (화정동) | Tel. 062)226-0001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E 300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1,740kg, 자동9단) 복합연비: 10.8km/ℓ (도심연비: 9.6km/ℓ, 고속도로연비: 12.6km/ℓ), 등급: 4등급, 복합CO2 배출량: 161g/km E 300 4MATIC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1,790kg, 자동9단), 복합연비: 10.3km/ℓ (도심연비: 9.3km/ℓ, 고속도로연비: 12km/ℓ), 등급: 4등급, 복합CO2 배출량: 169g/km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품 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